

조선 거주 서양인의 개항기 영문 월간지 『코리아 리뷰』 발간과 조선 인식 고찰

이슬 (세계화연구센터)

*The Korea Review*는 1900년대 초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던 서양인들뿐 아니라 5대륙 19개국¹에서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서양인들이 함께 구독하였던 잡지였다. 따라서 『코리아 리뷰』는 조선에 거주하였던 사람들 간 정보의 공유 통로였을 뿐 아니라 조선을 서양 세계에 알리는 정보의 전달 통로이기도 하였다. 조선에 와서 선교사역이나 무역, 외교 등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영문으로 월간지를 발행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서양인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당시의 대표적인 잡지는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Mission Field*, *Transaction of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와 *The Korea Review* 총 4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이 간행물들이 발행된 시기는 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 성격이 달랐다.² 이는 조선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시점에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수의 통로 중 가장 넓은 통로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³

『코리아 리뷰』는 대부분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던 서양인들에 의해서 저술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선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었으며, 오랜 조선 거주 생활을 통해서 가까이서 조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연구하여 얻은 결과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월간지 자체가 Field Work나 Ethnography, 즉 민속지(民俗誌)⁴ 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장철수에 따르면 민속지가 "연구하는 문화를 전혀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깊이와 폭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고하는

¹ 19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이탈리아, 모로코, 남아프리카, 인도,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한국이다.

The Korea Review, 1904년 11월 편집자란, 509쪽

² 『코리아 리뷰』가 선교지의 목적과 서양인들간의 한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잡지였다면, 『코리아 미션필드』는 완벽한 선교지였고, 왕립아시아학회의 회고지는 한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지에 가까운 간행물로 볼 수 있다. 『코리아 리뷰』는 『코리아 미션필드』의 형식을 빌려 발행 되었고 그 참여 인물 및 목적, 소재 등에서도 중복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코리아 미션필드』에서 한 단계 발전을 보임으로 선교지로서의 역할을 배제한 채 다양한 의견들과 한국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다루는 전문적인 한국 연구 간행물로 역할을 하였다.

³ C.N.Weems, *Hulbert's History of Korea*,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New York, 1962, p. ED 38

⁴ ethnography는 그 번역에 있어서 민족지 또는 민속지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 번역은 학문적 특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민속학에서는 주로 민속지로 일컫기 때문에 본인도 민속지라고 함을 밝힌다.

것⁵이라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속지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에 방문하지 않았던 18개국의 사람들에게 조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의식주를 비롯한 조선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 혹은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했다는 점, 조선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조선에 대한 지침서가 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스웨덴기자 아손 그랩스트는 1904년 12월 24일에 부산항에 도착하여 1905년까지 한국을 여행한 후에 1912년 자신의 나라에서 *I Korea* 라는 기행문 겸 조선을 소개하는 저서를 저술하였다. 한국의 각 지역여행기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이 들려주었다는 ‘코레아의 민담과 우화’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글들은 모두 『코리아 리뷰』의 잡동사니에 실렸던 글들이다. 아손은 이야기들의 소개에 앞서서 문맹률이 높아 기록될 수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화나 민담 등 구전문학을 다행히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채록하여 보존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 리뷰』가 한국을 이해하고 소개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⁶

1. 서양지식인들의 조선 민속지- 『코리아 리뷰』의 운영

1) 『코리아 리뷰』 발행의 배경과 목적

헐버트는 창간호의 논설란에서 『코리안 레포지토리』의 폐간과 그로 인한 영문 월간지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월간지 편찬의 중요성을 드러내면서 『코리아 리뷰』의 발행 목적을 밝히고 있다.

본문을 바탕으로 그 목적을 크게 나누어 보면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⁷ 첫째는 『코리안 레포지토리』의 폐간으로 인한 영문 월간지의 부재를 메우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조선에 거주하는 서양인들의 소통을 위해서 영문 월간지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고, 한국어와 한문에 뛰어났으며 인쇄소 운영을 맡고 있던 헐버트는 이러한 일에 책임이었기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코리아 리뷰』가 창간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치적 사건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부족한 나라의 현실로 인해 잡지 등의

⁵ 장철수, 「韓國 民俗學과 民俗誌의 體系」, 『역사민속학』 Vol.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203쪽

⁶ 아손 그랩스트·김상열역,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 한국을 걷다』, 책과함께, 2005.

원전의 제목(I Korea)가 위와 같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⁷ 1901년 1월 창간호의 편집자란을 통해서 목적을 정리하였다.(22쪽-24쪽)

매체가 부족하여 한국인, 역사, 관습, 법, 예술, 과학, 종교, 언어, 문학, 민속, 인종 관계 등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코리아 리뷰』의 발간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의 역사는 예수의 출현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영어권 국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변국가와는 또 다른 한국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가치가 충분하나 연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특히 한국의 민속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작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통해 『코리아 리뷰』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넷째, 그 목적에 있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영문 기록이 없기에 중국이나 일본의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지만 종종 오류가 많아서 한국에서 서양인들 간에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장래를 위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섯째, 논설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국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고 비교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코리아 리뷰』를 발행하여 서양인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질문을 공유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다섯 가지 목적과 배경은 6년간의 『코리아 리뷰』 발행과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2) 『코리아 리뷰』에 참여한 조선 거주 서양지식인⁸

개항기 조선에 거주하였던 서양인들이 선교사, 상인, 외교관 등이었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의사나 교사도 많이 있었지만 이들도 의료선교사 등 선교사의 이름으로 조선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전해져 오는 개항기 자료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독교사나 천주교사 등 종교학과 관련되어서 연구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과 같은 사명을 띤 청년들이 많았으며 100여 년 전의 시대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들은 고학력의 고급인력들이었다.

조선에 왔던 서양인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⁸ 『코리아 리뷰』에 참여에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서양인들의 선교사적인 역할보다 한국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양선교사 집단을 서양지식인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외교관 등 다른 직업의 서양인들도 포함이 되고 있다.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미국국적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 주류 교단 출신이었는데 특히 남·북 장로회, 남·북 감리회 선교사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주도 되었다. 류대영은 그의 연구에서 “세계 개신교 선교역사에서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한국만큼 미국 개신교 주류 교단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선교지는 없었다.”⁹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집단의 성격을 다루는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19세기 미국의 중추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중산층 출신들로 자신들의 빅토리아적 가정에 대한 사고방식 및 자신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로 한국에 들어왔다.¹⁰

『코리아 리뷰』에서 저자를 알 수 있는 글은 총 92편이며, 이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자는 총 52명으로 파악 된다.¹¹ 이들 중 5번 이상 글을 투고한 자가 5명이며, 나머지는 4번 이하로 투고하였다. 참여한 52명의 저자 중에서 가명을 사용한 자와 추적이 불가능한 자를 빼면 33명의 국적 및 직업이 파악이 가능한데 33명 중에 25명이 미국인이었으며, 캐나다인이 3명이고, 기타 독일과 호주인이 각각 한 명씩이었고, 3명은 국적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7명만이 의사¹², 미국의 동양학자¹³, 역사학자¹⁴, 지박소(指泊所, Boat Officer)요원¹⁵, 해관요원¹⁶, 궁내부고문관¹⁷ 등이었고, 나머지 26명이 모두 선교의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 리뷰』에 참여하였던 서양인들도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임을 밝힐 수 있었다.

⁹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년

	미북장로회	미북감리회	미남장로회	미남감리회	호주장로회	캐나다장로회	영국교회	기타(구세군 등)
수효	165	114	62	46	27	15	16	54
%	33.1	22.9	12.4	9.2	5.4	3.0	3.2	10.8

표 1. 내한 선교사 총수(1884~1910)

¹⁰ 이들은 대부분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자발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이하 SVM)을 통해서 파견되었으며 SVM의 주 포섭대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중산층 젊은이들이었다. 조선에 파견된 후에도 이들은 미국에서 누리고 있던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지대의 넓은 땅에 대저택을 짓고 살았고, 선교의 목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과 떨어져서 자신들만의 집단을 이루며 살아갔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그리는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뒤엉켜서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선교사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항기에 조선에 거주하였던 서양인들의 기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교사들에 대한 배경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¹¹ 하지만 본명을 밝히지 않고 The man on the Street(1901년 8월), Narro(1901년 4월). Stirling(1906년 3월), M.A.W(1905년 12월)등의 가명 및 축약형을 쓴 저자는 현실상 실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가명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¹² 이들은 대부분 의료선교사들로 한국에 내한하였으나 본국에서 의학학위를 받고 의사를 하다가 온 자들이 대부분이기에 선교사와 의사의 구분이 모호하다. 의료 선교사들로 모두 볼 수 있지만 선교 활동을 확인 할 수 없었던 이는 O.R.Avison과 E.Baelz가 있다. 이 외에 의료 선교사로 알려진 이들은 J.W.Hirst, Robert Grierson, Annie Ellers Bunker 등이 있다.

¹³ W.M.Elliot Griffis

¹⁴ Archer Butler Hulbert

¹⁵ F.H.Mörsel

¹⁶ D.Pegorini

¹⁷ W.F.Sands

표 2 각 연도별로 The Korea Reivew에 참여한 인물과 저술의 수

연도	논문 수	저자 수	참여 인물
1901년	19편	13명	Geo Heber Jones(3회), Jas.S.Gale(4회), S.F.Moore, F.H.Morsel, Archer Butler Hulbert ¹⁸ , C.C.Vinton, F.S.Miller, W.F.Sands, C.T.Collyer, E.Martel, Polemicus, The man in the Street, Narro.(2회) ¹⁹
1902년	4편	4명	George Douglas, Geo.Heber Jones, E.Baelz, D.Pegorini, H.O.T.Burkwall
1903년	10편	9명	Geo.Heber Jones, H.O.T.Burkwall(3회) ²⁰ , T.Sidehara, C.C.Vinton, W.O.Johnson, F.S,Miller, O.Seoung-Geun, S.F.Moore
1904년	6편	6명	S.F.Moore, Robert Grierson, O.R.Avison, H.G.Underwood, Elliot Griffis, Argos
1905년	29편	16명	J.Robert Moose(4회), Sensus Communis, N.C.Whittemore, G.Engle(6회), F.Bernheisel, W.E.Smith(2회), Kasakawa, C.D.Morris, Buford, J.Hunter Wells, Yi Chong-Won(5회), R.H.Sidebotham, John Kavanuagh, M.C.Fenwick, M.A.W., J.E.Adams
1906년	24편	16명	John Mikson(2회), H.H.Underwood(2회), J.Hunter Wells(2회), J.W.Hirst, J.Robert Moose(2회), Frank M. Brockman, Stirling, Yi Chong-Won(2회), Holofernes, L.H.U(2회), W.E.Smith, W.D.Reynolds, Ko Piung Ik, Kang Sun Pil, O Sung Keun(2회), Geo Heber Jones(2회)
총 합계	92편	52명	

서양인들은 그들만의 ‘가치관’ 안경을 쓰고 조선을 보았고,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은 조선인들 눈에 선진화된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기에 알게 모르게 이러한 모습은 서양인을 접한 조선인들의 삶에도 스며들기 시작하기도 하였다.²¹ 하지만 여전히 서양지식인들은 장기간의 거주를 통해서 조선에 현지화 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¹⁸ 역사학자로 헐버트의 동생이다.

¹⁹ 웹즈는 그의 책에서 “Narro.”가 Cassel's Magazine 1904년 10월호에 G.Lynch의 "Viyun's Vow,"에서도 종종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헐버트로 파악된다고 하고 있다.

C.N.Weems, *Hulbert's History of Korea 2*,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New York, 1962, p. ED444

²⁰ “H.O.T.Burkwall” 또한 헐버트의 잘 알려진 필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Narro.’와 ‘H.O.T.Burkwall’이 진정 헐버트의 가명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비록 헐버트 연구의 전문가인 웹즈에 의해서 정의되었다고는 하나 그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명을 헐버트의 것으로 단정 짓지 않고 우선 다른 저자의 글에 포함시켰다.

C.N.Weems, *Hulbert's History of Korea 2*,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New York, 1962, p. ED446

²¹ 『코리아 리뷰』에서는 외국 선교사 부인을 흉내내는 조선 여성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실려 있다. 비록 일부의 조선여성들 사이에서의 모습이겠지만 여성 선교사들을 모델로 하여서 의복에서부터 변화를 보이고, 평등을 향한 가치관의 변화는 이러한 영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구 방법을 가지고 한국을 연구하였다.

『코리아 리뷰』는 이러한 현지화 된 조선에 거주하였던 서양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공유한 월간지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들어 있으며,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을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가까이에서 조선인들을 접하면서 각자의 현지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선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인종에서부터 역사, 문화,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개항기의 한국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인식과 목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가는 민속지로서의 『코리아 리뷰』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3) 서양지식인들의 한국연구 참고 문헌 분석

개항기 내한 서양인들이 남긴 자료들은 대부분 서양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이라는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다뤄지고 있으나 기독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학문에서 시대사나 문화사 연구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양인들이 남긴 저서들이 기행문과 같이 주관적인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주관적인 기록이라는 점 외에 서양인들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과 선교사라는 점²² 등의 사실은 그들 연구의 관심과 노력은 인정되나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인정되지 못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한 예로 ‘관혼상제’에 대한 글을 썼던 의료 선교사 E.B.Landis(1865-1898)를 들 수 있는데 『코리아 레포지토리』에 따르면 랜디스는 맹자와 어록집 등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한문 실력과 한국어 실력이 뛰어났고, 중국의 학회에서도 활동을 하였다. 『코리아 리뷰』와 『코리아 레포지토리』에 그의 글이 여러 편 있으며 한국의 약물, 문헌 연구를 통한 강화도의 역사, 한국의 속담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였다.²³ 그의 연구들은 개화기 서양인들의 연구 논문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글 중의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결국 유식한 한국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²⁴ 이는 서양인들이 한국어

²² 유영렬은 『코리아 레포지토리』를 다룬 연구의 서문에서 『코리아 레포지토리』가 연구 자료로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잡지가 선교사들에 의하여 간행된 잡지이므로 주로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생각하여 일반 역사 자료로서 주목받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영렬·윤정란, 『19세기 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04

²³ M.N.T.라고 밝힌 저자는 랜디스의 일대기 저술에서 한국어 및 한문 등의 언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랜디스의 언어 실력을 토대로 유추하여 봤을 때 주자가례를 직접 읽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Korean Repository 1898년 4,5월 기사)

²⁴ 송재영, 「구한말 서양인이 본 한국의 의례 일고찰」, 동양학 36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및 한문에 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가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리뷰』에서 확인되는 참고 문헌들은 대략 53권 정도로 파악된다. 역사, 문학, 종교, 지리 등의 연구에서 1차 자료로 원전들이 참고 되었고, 인용 또는 소개된 한국 또는 일본 문헌들의 성격 연구를 통해서 서양지식인들이 한국을 연구하는데 개인적인 감상이 아닌 연구자의 자세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사실과 어떠한 자료를 선택, 참고하여 한국 역사 및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는지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이는 개항기 서양지식인들의 한국 인식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코리아 리뷰』에서 역사 저술 시 인용 또는 소개된 저서들은 다음 표 3과 같다.²⁵

표 3 『코리아 리뷰』에 인용된 문헌 (역사편)

분류	책 제목	인용논문	비고
역사 (26책)	삼국사기三國史記	‘한자의 유래’ (1901년 4월) ‘한국의 역사’ (1901년 1904년)	
	동국통감東國通鑑	‘한자의 유래’ (1901년 4월) ‘한국 문학의 아버지, 설총’ (1901년 3월)	
	동사찬요東史纂要	‘한국의 역사’ (1901년 1월~1904년 12월)	편집자 헐버트의 ‘한국의 역사’ 편의 주요 인용 문헌들
	동사강요		
	동사회강東史會綱		
	동사보유東史補遺		
	서전대문書傳大文	‘이두문자’ (1901년 7월)	
	유서일지		
	송경지松京誌	‘고려 왕조의 창립’ (1901년 11월)	송경지 번역, 요약
	고금잡지古今雜誌	‘대리석탑’ (1901년 1월)	
	금능집金陵集		
	삭은집索隱集	‘고대의 남부지역’ (1902년 1월)	마한, 진한, 변한에 대한 역사
	동국인물통고 東國人物通考	논설-백두산의 화산활동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인용 (1903년 8월)	
	유물총모類苑叢寶		Literary Gems
	훈민정음訓民正音	‘훈민정음’ (1903년 4월)	훈민정음 번역
	증비록懲毳錄 (유성룡)	‘1952년 5월 일본의 서울 점령’ (1903년 6월)	임진왜란 관련
	오리일기梧里日記 (이원익)		
	연려기술燃藜記述		
국조보감國朝寶鑑			
조야집요朝野輯要			

‘.....지금까지 개화기 서양인들의 한국의 의례에 대한 저술이나 논문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50 쪽), ‘랜디스가 중국어를 알았다면 『주자가례』나 한국의 가례서를 참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논문 전체 내용으로 보건대 유식한 한국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60 쪽)

²⁵ 역사항목 외 문학, 종교, 지리 등에 참고된 문헌에 대한 자료는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 참고

서아집西戡集		이항복의 일기
정외신지征外新誌		일본 문헌
한반도 韓半島		일본 문헌
한국내안韓國內案		일본 문헌
증정교린지 增正交隣志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증정교린지 번역)1-7’ (1903년 6월~1904년 1월)	7회에 걸친 원전 번역
조야회통朝野會通	‘북한산의 성벽’ (1903년 10월)	

4) 창간자이자 편집장인 헐버트(Homer B. Hulbert, 忽法, 1863~1949)와 『코리아 리뷰』에 그가 미친 영향

『코리아 리뷰』 분석을 위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편집자 헐버트에 대한 연구이다. 편집자의 역할로 인한 중요성 외에도 『코리아 리뷰』 자체가 헐버트의 사업이라고 평가가 될 만큼 그의 관점이 『코리아 리뷰』의 운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헐버트를 연구한 미국인 워즈의 글을 빌려 표현하자면 “『코리아 리뷰』는 가끔 감리교 월간지라고 불리기는 하나 편집상, 사업상의 관점에서 보면 감리교 월간지가 결코 아닌 완전한 헐버트 개인의 사업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²⁶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워즈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는 현재는 일반적인 사실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1905년까지 편집, 교정, 사무실 관리, 구독료 수집 등의 역할을 총괄하고 있었고, 375편의 한국 관련 논문 중 저자가 확인되는 94편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헐버트가 썼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에 앞서서 『코리아 리뷰』에 반영된 편집장 헐버트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헐버트가 잡지 성격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헐버트에 대한 연구는 개항기에 조선에 거주하였던 타선교사 및 서양인에 비해 많이 진행되어 왔다.²⁷ 이는 1950년 헐버트가 대한민국 건국공로상까지 받을 정도로 한국 독립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한국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²⁶ C.N.Weems, *Hulbert's History of Korea*,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New York, 1962, p. ED 38

²⁷ 헐버트를 중심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윤경로, 「Homer B. Hulbert의 한국관연구-한국민족과 역사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사상』 18집, 1981, 「Homer B. Hulbert연구-그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29집, 1981, 「헐버트의 한국에서의 활동과 한국관」,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손정숙, 「구한말 헐버트(Homer B.Hulbert)의 對韓認識과 그 활동」, 이화사학 22집, 1995; 신이래, 「구한말 선교사 헐버트의 활동 연구」,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년, C.N.Weems, *Hulbert's History of Korea*,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New York, 1962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개항기 시대 서양인 활동 및 기독교 관련 저술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방대한 저술활동²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명백히 했고 이를 영어권 국가 및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고 현재까지도 그의 자손들까지 한국과의 의미 있는 관계의 끈²⁹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연구가 수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헐버트의 활동 및 그의 대한의식은 『코리아 리뷰』에 즉시 반영되었으며 따라서 그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코리아 리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워즈는 헐버트를 연구한 그의 글에서 헐버트가 『코리아 리뷰』를 편집하면서 품고 있었던 생각을 크게 6가지로 정리하였다.³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재능면에서는 동등하다는 점, 독립은 객관적인 역사연구를 통해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서양의 개인과 국가에 대한 관점과 문화·과학적 지식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교육이 한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 기독교의 이상(ideal)이 한국 사회의 진보와 자유를 위한 기초를 만듦에 있어서 유교의 윤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 한국의 개신교 미션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단체로써 움직일 때 한국에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한국의 외국 단체들은 한국인들을 진정으로 도와야 하며 일본의 매체에 의해 이용되는 와전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점, 일본은 사회 진보와 계몽을 의미하고 러시아는 독재정치와 부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이 둘 중 어느 한 손에 떨어져야 한다면 일본이 바른 선택이라는 점이다.

관리들의 부도덕성과 고여 있는 물과 같이 정체되어 있는 한국을 깨우치기 위해서 헐버트는 『코리아 리뷰』에 위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담았으며 독자들을 설득시켜 동참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다. 특히 한문사용을 부정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모든 이들을 계몽시키고자 했던 것과 교육만이 한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점은 특히

²⁸ 손정숙에 따르면 1890년부터 그의 사후 1955년까지 발표된 헐버트의 한국관련 저술은 잡지나 신문 등에 실린 188편의 글과 단행본 6권(한국어 사전, 한국어와 인도 드라비다족어의 비교문법, 한국의 역사, 대한제국사서설, 한국의 전설, 한국에서의 일본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188편의 논문 중 80%를 차지하는 151편의 글이 『코리아 리뷰』에 실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손정숙이 워즈의 글을 참고한 것이며, 워즈는 『코리아 리뷰』에서 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모든 글을 헐버트의 글로 보고 추산한 것이지만(unquestionably written by him) 헐버트라고 명확히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를 헐버트의 글로 간주하는 것에는 위협성이 따른다. 또한 『코리아 리뷰』의 모든 글들의 저자를 일일이 구분 짓는 것이 성격상 쉽지 않기 때문에 워즈는 편집자 란과 잡동사니의 일부만 헐버트의 글에 포함하여 『코리아 리뷰』에 실린 헐버트 글의 통계를 내고 있지만 그것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정숙, 「구한말 헐버트(Homer B.Hulbert)의 對韓認識과 그 활동」, 이화사학 22집, 1995, 132~136쪽
C.N.Weems, *Hulbert's History of Korea 2*,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New York, 1962, pp. ED423-424

²⁹ 헐버트기념사업회가 1999년에 발족되어 헐버트의 추모식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5일 60주년 추모식에는 그의 손자가 방한하여 헐버트의 유품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³⁰ C.N.Weems, *Hulbert's History of Korea*,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New York, 1962

잡지의 곳곳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헐버트의 관점이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으나 헐버트는 폐간 직전까지도 『코리아 리뷰』를 통해서 세상에 한국의 현실을 알려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점은 적어도 헐버트가 『코리아 리뷰』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개국의 독자에게 한국의 정보창고 역할을 하고 한국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토론의 장을 만든 『코리아 리뷰』는 비록 월간지이기는 하나 편집자 헐버트 개인의 목소리가 우세하였기 때문에 헐버트 개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월간지 연구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2. 『코리아 리뷰』의 구성과 소재

본 연구는 『코리아 리뷰』에 실린 각 글의 내용을 연구·분석하기 위함이 아니라 『코리아 리뷰』의 성격을 파악하여 소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분류라는 방법을 선택해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을 통해 『코리아 리뷰』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에 대한 연구가 담긴 논문(article)과 다양한 단편적인 글들이 실려 있는 잡동사니(Odds and Ends)이다. 내용 구성 분석을 위하여 가장 먼저 모든 글들의 영문 제목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분류한 세부 항목을 묶어서 크게 8항목으로 구분하였다. 8항목은 한국의 문화³¹, 역사³², 사회³³, 정치, 상업, 책 서평, 인물소개, 서양인 활동으로³⁴ 크게 보면 한국에 대한 글과

³¹ 한국의 문화에는 한글에 관련된 연구와 시, 소설을 포함한 한국의 문학, 전래동화, 속담 및 수수께끼 등 언어와 관련된 글과, 풍속 및 의례와 관련된 글, 종교, 한국의 예술과 관련된 글 등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다양한 한반도 여행기도 포함시켰는데 이는 여행기를 통해서 서양인들이 접한 한국인들과 한국의 생활상을 살펴 볼 수가 있고 글의 목적이 자신들의 경험한 여행기를 통해서 후에 여행을 할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 및 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

³² 한국의 역사에는 고려시대 및 고대 한국의 국가들에 대한 연구 및 한국인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글들을 포함시켰다. 서양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한국인의 기원이었는데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언어를 통한 다양한 민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인의 기원을 추측하고자 하고는 글들이 『코리아 리뷰』만이 아닌 서양인들의 기술에서 종종 보인다. 이는 서양인들의 한국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중요하게 여겨 관심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에 역사에 포함시켰다.

³³ 한국의 사회에는 사회상과 관련된 글들을 포함시켰는데 특히 서양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한국의 교통수단, 새로운 시설, 기관 등의 사회 모습의 변화상에 관련된 글들과 한국의 교육, 여성의 지위, 처벌, 의료 등 사회 생활을 알 수 있는 글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독자들에게 한국의 지역을 소개하는 글들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여행기와는 다르게 지역에서의 생활 조건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에는 긴박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러일전쟁 및 일본의 대한정책 및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기사들을 포함시켰으며, 상업에서는 무역과 항구관련 글과 한국의 생산물과 통화, 세금에 대한 기사와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기사를 포함시켰다.

³⁴ 서양인활동 관련 항목은 서평과 인물, 서양인 활동 등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서평에서는 주로 서양인들이 발간한 여행기를 포함한 저서들에 대한 서평이 있고, 인물에는 한국인도 포함이 되나 주로 대부분 서양인물에 대한 소개 글이다. 이는 대부분 추도의 글이기는 하나 인물들의 생애의 전반적인 부분과 한국에서의 활

서양인들의 활동에 관련된 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분류는 모두 앞에서 언급한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코리아 리뷰』의 구성을 보면 크게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국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란(Article)과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다루고 있는 '잡동사니(Odds and Ends)', 독자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질문란(Question and Answer)',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과 서양인들의 활동 관련 뉴스들을 전해주는 '이달의 소식(News Calender)', 편집자의 논설란(Editorial Comment), 그리고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매월 15페이지 분량이 실린 험버트의 '한국의 역사(Korea Histor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책을 소개하거나 평가하는 서평란도 있지만 고정된 섹션은 아니었고, 1902년 6월부터는 지난달의 강우량, 습도, 온도 등을 종합한 기상관측표(Table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s)가 실려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양인들의 활동을 도왔다.

한국에 관련된 연구논문은 6년에 걸쳐서 약 318편³⁵이 집필되었고 이는 평균 한 달에 4편에서 5편의 글이 실린 것이며, 잡동사니는 총 135편으로 꾸준히 실려 있기는 하지만 월별 분량은 일정하지 않다. 질문은 총 37개이며 1901년에 17개, 1902년에 11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에 계속해서 독자에게 질문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란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먼저 『코리아 리뷰』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 관련 기사(Article)를 8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한국의 문화에 관련된 글이 110편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표 4 참고). 특히 속담이나 수수께끼를 소개하는 글들이 많다. 『코리아 리뷰』에는 총 50개의 속담이 소개되고 있는데 『코리안 레포지토리』에서 이미 190여개의 속담이 소개된 바가 있어서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서양인들이 언어 습득에서 속담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기울여서 연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선님이종만업수이녀인다'

"The poor old gentleman can despise no one but the slave."

이 속담은 한국생활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데 돈이 없는 양반은 한국에서 가장

동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개항기에 한국에 거주하였던 인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서양인 활동에서는 선교활동과 교육활동 등 서양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활동들에 대한 기사를 분류하였다.

³⁵ 종종 '무당과 관수 1-6'과 같이 여러 편으로 나뉘어서 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수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코리아 리뷰』에서의 분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6편으로 각 각 계산하였다. 따라서 318 편 안에는 주제가 중복되는 글들이 포함된다.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무 고상해서 일을 할 수 없고, 자존심이 강해 구걸하지도 않지만 먹고 살기에는 너무 가난하다.(1901년 2월호)

한국의 수수께끼는 F. Bernheise에 의해서 총 53개가 소개되었는데 그는 한국인 두 명에게 수수께끼를 모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이틀 후에 그들은 175개의 수수께끼를 가지고 돌아왔다. 저자는 그 양에 대해서 놀랐고, 대부분이 단어나 말의 장난이기에 번역이 어려워져 전체는 실지 못하고 전형적인 수수께끼만을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감은감이라도못먹는감이무어시오 영감이오

What kind of *Kam*(persimmon) cannot be eaten?

A *yung-kam*(an old man)

속담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는 그 나라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에도 익숙해져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코리아 리뷰』에 소개된 수수께끼들은 개항기 시대의 수수께끼 및 언어 및 문화를 연구하는데 자료가 되며 서양인들이 언어와 문화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속담과 수수께끼와 같은 문화가 담긴 언어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래동화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에 관련된 글 110편 중에서 41편이 바로 전래동화이다. 여기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전래동화의 번역과 서양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직접 저술한 전래동화 등이 있는데 호랑이나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으며 권선징악과 관련된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본인의 항목 구분에 따르면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한국의 사회'이다. 사회에서는 편집자인 헐버트의 주요 관심사였던 한국의 교육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자주 등장하며, 새로 생긴 철도나 수도시설, 병원 등에 관한 소개 글들이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1904년 11월호는 세브란스 병원 특집과 같이 편집되어서 병원의 구체적인 사항과 운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울-부산, 서울-의주간 철도의 개통 계획 시부터 완료 시까지의 기대와 함께 철도의 내부, 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주제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한 관찰 및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한국의 도박, 아편 사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글도 있는데 1906년 11월호의 '한국의 도박'에서는 궁예, 승마, 석전, 바둑 등을 통한 도박 방법과 카드 놀이법에 대한

소개, 도박의 속임수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인들이 관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여 불법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점과, 법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인들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같은 해 2월호의 '한국의 아편'에서는 중국인에 의해서 들어온 아편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고 평양의 일본인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면서 한국인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이로써 한국인들을 파괴시키고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아편의 사용을 반박하며 궁극적으로는 상업을 위해서 판매를 눈감아주고 있는 일본에 대한 비난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소개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북한, 해주 등 한국의 지역이 소개되고 있다. 그 중 서울에 대한 기사에서는 서울의 다리와 우물에 대한 명칭과 그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금천교, 총침교, 광통교, 소광교, 수각교, 수포다리, 야조현교에 대한 소개 및 이름에 대한 유래 및 전설이 담겨 있다. 그 중 광통교는 다리 위에서 닭이 팔렸기 때문에 "암탉다리(hen bridge)" 라고도 불리웠으며, 초석교는 그 전에 화약을 만들 때 사용하던 초석(硝石) 공장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인들이 다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 북쪽의 다리는 수컷뱀이 지키고 동쪽은 암컷뱀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둘은 만나고 싶었지만 그 사이에 세 가지 방해물이 있었다. 그 첫째는 수각교를 내려다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미이고, 둘째는 소통교를 내려다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렁이, 그 셋째는 광통교를 내려다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네였다. 이들은 결합하지 못함에 슬퍼하다가 왕이 행차할 때 그 고개를 들어서 울부짖는다고 전해진다.

(The Bridges and Wells of Seoul, 1903년 3월호, 106쪽)

1903년 5월 기사인 '수도의 특권'에서는 한국인들이 수도인 서울을 선호하는 18가지 이유와 시골을 선호하는 5가지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던지 간에 항상 '올라가는 곳'이며 시골은 '내려가는 곳'이라며 한국인들에게 서울과 시골이 가지는 상징성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간주하는 한국인들이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고위 관리가 되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관직생활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구경거리를 즐길 수 있어서, 서울 사투리는 전국에서 통하기 때문에, 홍수나 재해 시에 식량 공급이 가장 원활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 세금착취가 시골에 비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상인 조합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가장 살기에 위생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근교가 밋자리로

좋다는 믿음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한 양반이 서울을 대신해서 시골로 가야 할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선호도를 보면, 첫째는 많은 양반이 살고 있고 수도에서 멀지 않은 충청도이며, 둘째는 단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경기도, 셋째는 쌀이 풍부한 경상도, 넷째는 자금 회전이 좋다고 여겨지는 전라도, 그 다음은 많은 약재와 좋은 산과 물이 있는 강원도, 여섯째는 즐기기에 좋은 평양, 그 뒤로는 황해도, 마지막으로 사실상 유배지라고 여겨지는 함경도이다.³⁶

이 외에 처벌과 관련된 형벌의 차이에 따른 유배지의 급과 종류, 노예제도와 한국의 인구 등에 대한 글이 있으며, 하와이에 처음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상과 사회생활을 소개한 글들이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묘사한 글들을 통해서 개항기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려볼 수 있으며, 이는 비록 서양인의 관점에서 관찰되었지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개항기 시대사와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한국의 정치에서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비난과 한국인들이 받고 있는 억압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글들이 대부분이며, 러일 전쟁시에는 전쟁의 생생한 소식들을 전하는 기사들이 특집으로 발행되고 있다. '한국의 상업'에서는 개항 직후의 한국의 무역이나 광산 및 금광을 채광하기 위해서 내한한 외국 기업들, 한국 내에서의 상업활동에 관련된 정보들(은행, 대출, 이자율) 및 토지 매매에 관련된 사항, 세금과 한국의 통화 등 특히 한국을 새로운 상업 개척지로 여겨 내한한 서양인들이 상업을 위해 알아야 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곡물에서부터 광물까지 다양한 생산물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곡물이나 채소, 과일류에 대한 설명에서는 곡물의 유래와 생산지 소개와 함께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들어 있다

서양인들의 활동과 관련된 글에서는 각 종 여행기를 비롯한 저서들에 대한 서평과, 교육·의료 등의 선교활동의 경과, 아시아학회 한국지부(RASKB)에 대한 소개와 활동 안내, 서양인들의 강화도 묘지 사용에 대한 논의 등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인물소개는 주로 사망으로 인한 추도사이며 소개된 인물로는 뮐렌도르프, 두 프론 허치슨, 조지

³⁶ 이와 더불어서 관리직을 지낼 때 가장 좋은 지역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함경도, 둘째가 경상도와 전라도, 그 다음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순이다. 충청도는 많은 양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기에 쉽지가 않고, 평안도는 군사의 요지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며, 강원도와 황해도는 거의 통치가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 명분상으로만 관리라며 지역별 특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폴크 미국공사, 윌리 소령, 아펜젤러, 립셀포트 펠리 등으로 그들의 생애 및 한국에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 인물 소개로는 최치원과 민영환의 일대기 연구가 있다.

『코리아 리뷰』에는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이 실렸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 정치, 상업 등의 순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서양인들이 한국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관심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과 생활을 위한 것에서부터 한국을 대변하기 위한 것, 정보를 주기 위한 것 등 다양하였지만 이러한 목적의 연구가 모여져 각 분야의 개항기 시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8가지 항목별 구분과 그 논문 수를 도표화 시켜서 나타내면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The Korea Review 중 논문 Article의 내용 분석

분류	편수	상세 분류	비고
한국의 문화	110편	언어 및 문학	한국어의 언어학적 이해 소설, 이야기(Folklore), 시(자작시, 번역시), 속담, 수수께끼
		여행기	각 종 한반도 여행기
		의례·풍속	새해풍속, 상장례, 놀이
		종교	무속, 천도교, 점복,
		예술	미술, 도자기 등 유물
한국의 사회	61편	교육	교육의 변화, 여성의 교육, 교육의 필요성
		사회개혁	개항 후 변해가는 조선의 모습
		사회 시설	철도, 수도 시설
		지역 소개	북한, 해주, 서울의 다리와 우물, 서울이 가지는 특권
		의료	세브란스병원 개원, 조선 병원의 상황
		처벌	유배의 급과 종류, 노예
		여성	직업, 교육, 재산권, 이혼, 모임, 오락 등
		인구	조선의 인구수에 대한 논의
		해외의 한국인	처음으로 하와이로 이민 간 조선인들
		사건 및 사고	조선에서 벌어진 사건들
한국의 정치	47편	일본의 통치	일본의 통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
		전쟁	러일전쟁, 북한지역의 러시아인들
한국의 상업	25편	광업	강원도의 광산, 채광법소개
		조합	각 종 상인 조합

		상업 현황	시장, 토지 및 주택 매매, 은행, 대출, 이자율 등
		개항장	서울, 제물포, 목포, 평양, 원산
		기업	한국의 미국기업
		생산물	곡물, 채소, 과일
		통화	통화의 가치, 주조소
		세금	세관, 세금의 종류
서평	23편	출판된 책에 대한 서평	서양인들이 출판물이 다수
서양인 활동	20편	선교	교육, 의료, 성서번역
		서양인 모임	RASKB, YMCA, 묘지에 대한 의논, 결혼 및 장례식 등
인물소개	17편	서양인, 조선인	업적, 일화, 일생 등
한국의 역사	15편	한국사 관련	가야국, 고대한국의 전기 등
		역사 자료	역사지 번역(송도지, 증정교린지), 자료에 대한 고민
		한국인의 기원	이웃 민족들과 언어적, 체형적 비교를 통한 기원 추정
총 기사 수 318편			

3. 맺음말

본 연구는 그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코리아 리뷰』의 시대사 혹은 문화사 자료로서의 그 가치를 밝히고 그들의 한국 혹은 조선에 대한 인식이 『코리아 리뷰』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 소재와 내용 구성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코리아 리뷰』는 선교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참여인물의 구성, 인용된 참고문헌,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단순한 기행문이나 선교지의 역할보다는 개항기 민속지 및 서양지식인들의 공유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생활 등 그 관심이 다양했으며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어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 총체적인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선행연구 및 조선의 원전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진지성 또한 발견할 수가 있었다.

본인은 본 연구를 토대로 추후 『코리아 리뷰』의 내용 연구를 통해 개항기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서양인의 생활상, 더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가 서양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전파되어갔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